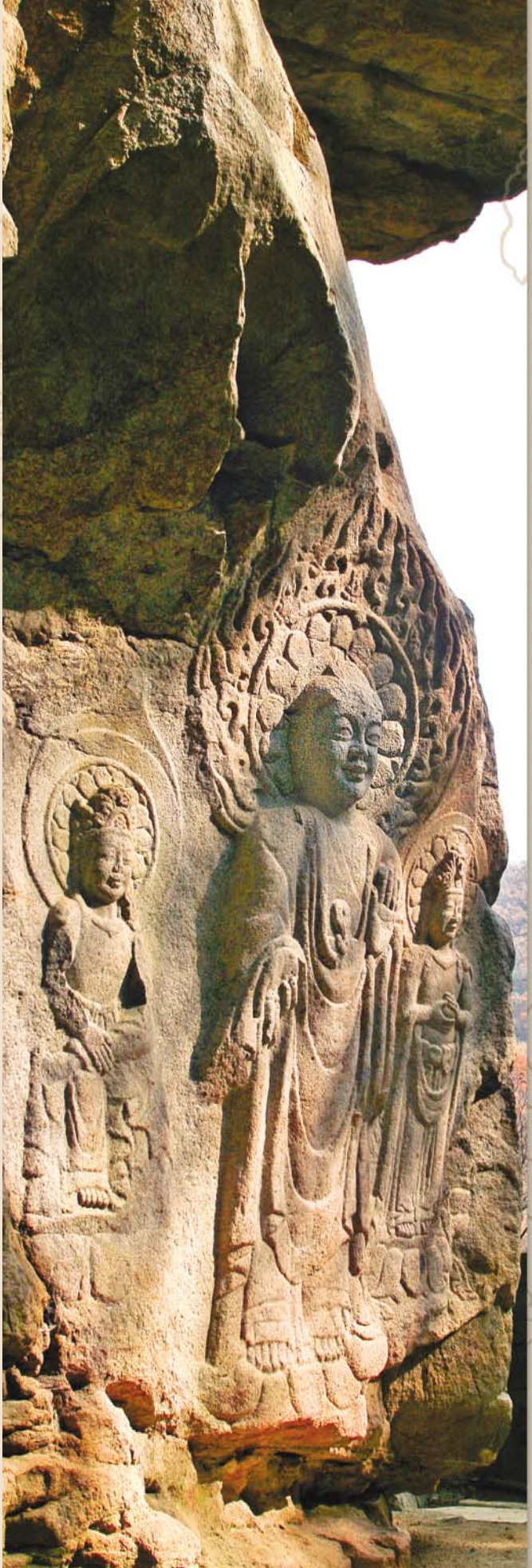
ebook.
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소산의 숨결 | 비매품(통권 제331호)
발행일 2011년 5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낭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서산문화원 보(비매품)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1996. 5. 9)

소산의 숨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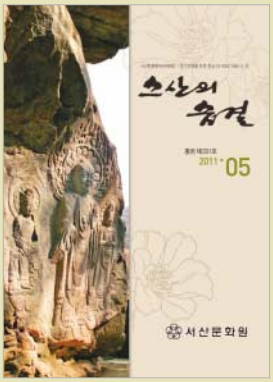
통권 제331호
2011 * 05

서산문화원

목 차

03 서산 “강댕이골” 로의 초대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04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한기홍 / 컬쳐플러스 이사)
08 서산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2) (이강열 / 학예연구사)
10 서산의 문화인물 – 류방택
12 공공미술 (公共美術) 2 (조성찬 / 미술 강사)
15 나의 아버지 곤강을 말합니다. (윤명순)
18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정순왕후 (김종성 / 역사학자)
22 금산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김호택 / 금산문화원장)
25 문화공간 – 백남준아트센터
28 인터뷰 – 안견기념사업회
30 청소년 문학제 고등부 최우수상 – 이땅의 후예 (정가영 / 대산고)
32 문화원소식
33 시정소식

2011년 • 5월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제84호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백제후기의 작품으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달라져 빛과의 조화를
이룬 문화재이다.

단오 한마당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고 여름을 맞이한 준비를 하는 단오(음 5.5)! 단오절을 맞이하여 여름맞이 체험행사와 민속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놀이도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 언 제 | 6월 5일(일)

| 어디서 | 중앙호수공원 광장일대

공연마당 판 굿

체험마당 도자기 만들기, 압화열쇠고리 만들기, 우산만들기, 창포비누 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수리떡 만들기 등

민속놀이 투호, 팔씨름, 제기차기 등(경기별 상품마련)

단오절계절음식도 나누어먹어요~

▮ 문 의 : 669-5050 (서산문화원 사무국)
http://seosan.cult21.or.kr/
※ 행사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산 문 화 원

서산 "강댕이골" 로의 초대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하늘의 중심 별자리인 자미원(紫微垣)에서 기(氣)가 발산되어 서산(瑞山) 땅에 내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알려져 낙토(樂土)서산이라 해왔고 삼한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아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선사시대부터의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왜 이곳 서산땅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었나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10대 사찰로 자리해 왔던 보원사를 가야산이 서북방의 품에 안고 있으며 이곳에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국보 84호 마애삼존불상을 잉태하면서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다. 이곳 보원사지에는 지금도 무수한 보물들이 산재해있다. 백제부터 신라와 고려에 이르도록 찬란한 문화유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곳에는 대형 석조(石槽)가 있고 당간지주(幢竿支柱)의 대표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보급 보물인 5층 석탑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고 석가탄신일을 맞는 5월에 이곳으로 초대함은 법인국사 탄문(坦文)스님의 종적을 살필 수 있는 법인국사 보승탑과 보승탑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문화와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방의 가치를 가져 봄직하다. 가야산의 끝자락인 이곳 강댕이골에는 백개의 암자가 있었다. 풍수학적 관점에서는 이곳이 명당도 아닐성 싶은데 이토록 많은 사찰이 이곳에 집단화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북향을 한 산골짜기이고 개울물은 곧은 길로 급하게 솟구쳐 흐르고 멈추며 휘감기는 맛이 없다. 누가 봐도 풍수지리적으로는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곳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불교의 번성과 배척의 시기를 겪으면서 보호본능적인 입지를 찾은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천연요새인 것이다.

불과 몇십명의 수장들만 있으면 수천수만의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다.

더욱이 삼국시대의 유물이 골고루 발굴되고 있는 현장에서 진품들을 감상하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권해본다.

상서로울 서(瑞)자를 앞에 놓고 땅이름을 지은 곳이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瑞山 : 우주의 기(氣)가 모이는 땅 서산에서 당신의 품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라며 볼거리 먹을거리가 사시사철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고장 서산 강댕이골을 밟아 보는 것은 당신에게 꿈 그 자체일 것이다.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차 례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와 문헌상 나타난 장태제도
Ⅲ. 명종태봉에 관한 고찰
Ⅳ. 맺음말

한 기 홍
컬쳐플러스 이사
서산향토문화연구회원

3-2) 사진자료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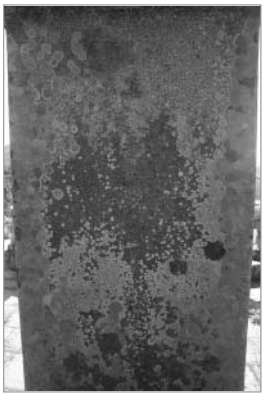
(태비 – 왼쪽부터 아지비, 중수비, 가봉비)

아지비

(전면) 大君椿齡阿只氏胎室
(후면) 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立

가봉비

(전면) 主上殿下胎室
(후면) 嘉靖二十五年十月 日建



중수비

(전면) 主上殿下胎室

중수비

(후면)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
後一百六十五年辛卯十月日改石

아지비 후면

태비 탁본 사진

가봉비 후면

중수비 후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종태봉의 유물현황은 태비 3기(아지비, 가봉비, 중수비)와 석물(석종형 부도 모양의 석물과 난간석, 전석 등)이 전부이다. 태함은 부도형 석물 아래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발굴해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사진 자료상으로 볼 때 명종태봉은 1975년 김종필씨에 복원되고 이후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원시에 확실한 고증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진상으로도 가봉비의 본체와 받침석의 재질이 다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통상적으로 가봉비는 받침석을 귀부형으로 하고 있는데 본 명종태봉 가봉비는 받침석이 연화무늬형이다. 이는 아마도 복원시나 중간 어느 시기에 현재의 연화무늬형 지대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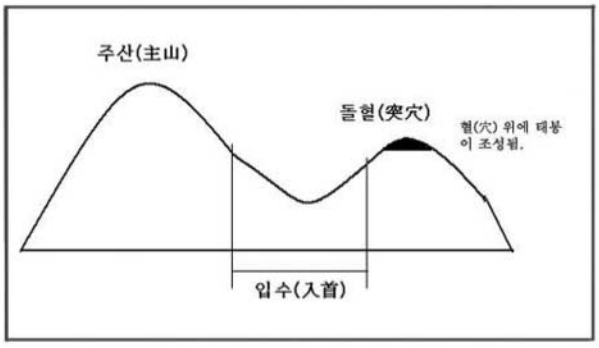
시지에는 '가운데 비석은 1546년 명종 원년에 세운 것이고 우측의 비는 가운데 비의 신비(新碑)로 1711년 숙종 37년에 예조참의 송징은에 의해 다시세워진 것'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두 비가 서로 뒤바뀌었음을 비문을 통해서 확인 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지비 비문내용 (전면) 大君椿齡阿只氏胎室
(후면) 嘉靖十七年二月二十一日卯時立
○ 가봉비 비문내용 (전면) 主上殿下胎室
(후면) 嘉靖二十五年十月 日建
○ 중수비 비문내용 (전면) 主上殿下胎室
(후면)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
後一百六十五年辛卯十月日改石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최초로 태봉 조성과 더불어 아지비(사진상 왼쪽 비석)가 세워졌고 명종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가봉비(사진상 오른쪽 비석)가 세워졌으며 마지막으로 중수비(사진상 중앙에 위치한 비석)의 순서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서산시지를 비롯한 몇 몇 자료에 이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는데 조속한 시정이 있어야 하겠다.

3-3) 태봉의 입지선정 원칙과 풍수지리적 접근

앞에서도 언급하 바와 같이 태봉의 입지는,『세종실록』에는 "좋은 땅이란 것은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 위로 공중을 받치듯 하여야만 길지가 된다."라고 하였고,『태봉등록』에는 "무릇 태봉은 산 정상에 내맥이 없는 곳이며 용호가 마주보는 곳에 써야 한다."라고 하였으며,『현종개수실록』에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들판 가운데의 둥그런 봉우리를 선택하여 그 위에다가 태를 보관하고 태봉이라..."하였듯이 태봉지는 볼록하게 우뚝 솟아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를 풍수지리학에서는 돌혈(突穴)의



풍수학상 돌혈 (突穴)의 구조도

명당 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돌혈의 형태는 물방울의 거품(泡) 모양을 하고 있다.

돌혈의 푹 꺼졌다 치솟은 형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거북이 몸통에서 고개를 쑥 빼내 머리를 쳐드는 형상이나 뱀이나 용이 고개를 쳐드는 형상이다. 돌혈에는 태봉으로 많이 쓰이지만 누정(樓亭-정자)의 자리로도 많이 사용된다.

통상 어느 지역의 풍수적 요건을 설명할 때 용혈사수(龍穴砂水)로서 설명하고 있다.

서산의 명종태봉은 첫째, 금북정맥을 내룡(來龍)으로 하여 서해안에 이르러 가야산(伽倻山)에서 솟구쳐 태조산(太祖山)을 이루고, 그 힘찬 기운은 다시 전진하여 상왕산(象旺山)을 만들어 태봉의 주산(主山)이 된다.

둘째로, 상왕산(象旺山)에서 금북정맥의 큰 줄기를 서해로 보내고, 가운데 넓은 들판으로 뻗어 나온 한 줄기의 맥은 마치 굴 속에 숨어있던 용이 잠에서 깨어나 머리를 쳐드는 전형적인 돌혈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셋째로, 상왕산에서 뻗어나간 금북정맥의 큰 줄기는, 간대산-성왕산-물래산-백화산-매봉산을 지나 지령산을 지나 안흥진에 이른다. 이 금북정맥은 멀리서 명종태실을 호위하고 있다.

넷째로, 명종태봉을 둘러 싼 금북정맥은 태봉 앞쪽에 넓고 맑은 명당(明堂)을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명종태봉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완벽한 미와 균형감을 갖춘 곳으로 명당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명종태봉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헌과 사진자료 및 기타 제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문헌자료 확보에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확보되어진 자료가 빈약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심이 들 정도이지만 후일에 이러한 논고가 쌓이고 또 쌓여서 명종태봉에 관하여 확실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 여기고 이에 일조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명종태봉의 태비(아지비, 가봉비, 중수비)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진 것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서산시지를 비롯한 관련 책자들의 시정을 바라며 그리고 명조태봉이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내에 위치하여 현지답사 나가는 것도 한우개량사업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화재인데 출입만이라도 개방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졌으면 한다.

서산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2)

학예연구사
이 강 열

서산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들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굴조사는 땅속에 매장된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그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다. 우리지역에는 지역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들이 있고, 이들 유적의 가치는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순으로 유적의 현황과 가치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곡면 중왕리 왕산마을의 왕산패총을 들 수 있다. 현재 서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패총유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인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한 유적이 바로 패총유적인 것이다.

(중왕리 왕산패총)

(부성산성 전경)

과거 서산지역의 패총유적은 모두 5곳이 조사되어 보고서에 실린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각종 개발공사로 인하여 대부분의 패총유적은 사라졌다. 중왕리 패총은 현재 밭과 민가주변의 대략 300여 평이다. 지속적인 경작으로 인하여 일부분이 삭평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유적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왕리 패총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단기간에 만들어진 패총들과는 차이가 있다. 중왕리 패총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서산지역 선사문화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부성산성을 들 수 있다. 부성산성은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 백제시대 석축산성이다. 부성산성이 있는 산성리의 지명은 부성산성으로 인해 얻어졌다. 서산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지역은 지곡이며, 부성산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있는

백제시대 지육현의 치소로 비정되는 곳이다. 또한 문헌상 최초의 서산군수인 최치원 선생이 통일신라시대 부성군 태수를 지냈는데, 부성군의 중심지가 바로 부성산성으로 추정된다.

부성산성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성내 곳곳에서 보이는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와 기와편으로 인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03년에는 부성산성 정밀 학술조사를 통해 백제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확인되었고, 백제시대 대중국 교통로 상의 거점으로서, 또한 통일신라시대 부성군의 중심지로 추정되었다.

현재 부성산성은 일부지역에 훼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온전한 모습의 성벽을 가지고 있으며, 산성내에서는 지금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많은 양의 백제기와와 토기가 확인된다.

부성산성은 그동안 백제문화의 중심인 공주, 부여이외의 다양한 백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통일신라시대 부성군의 중심지로 확인된다면 최치원 선생과의 관련성도 크게 부각될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오사리 청자요지이다. 고려시대 유적으로 판단되는 성연면 오사리 청자요지는 성연면 오사리 공동묘지 내에 위치한다. 현재 유적지는 공동묘지의 개설과정에서 상당부분 유적이 훼손되거나 파괴된 상태이다. 그리하여 유적지에서는 전축가마의 벽체에 사용된 벽돌과 소토, 상품자기를 구워낼 때 사용되었던 갑발, 발색이 좋은 순청자와 해무리굽 청자, 옹기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적 전경)

(지표수습 유물)

오사리 청자요지는 청자유적지도에서도 빠짐없이 수록될 정도로 관련학계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조선시대에 이곳은 사장동(沙場洞)으로 불렸으며, 인근에 백자요지도 있어 서산지역 최대의 요업지대로 볼 수 있다. 유적조사가 된다면 고려시대 청자의 전파와 발전의 파악에 중요한 유적이 될 것이며, 시대를 두고 내려오는 백자요지와의 연관성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적들은 서산역사의 한 장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나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유적들이다. 우선 유적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든 금헌 류 방 택

류방택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조명되는 인물이다. 고려말 절의 있던 인물로서 서령 류씨로 서산과 관련되며, 지금의 만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든 천문학자이다.

류방택(柳方澤, 1320~1402)은 서산 류씨로 자는 윤보, 호를 금헌(琴軒)이라 하였다. 유성신의 장남으로 1320년(충숙왕 7) 서산 구치산 아래 양리촌에서 출생하였다.

33세인 고려 1352년(공민왕1년) 섭산원(종8품)벼슬로 관직에 나아간다. 42세때에 홍건적이 서울과 강화를 침범하자 혼란 중에 국력이 없어, 공이 스스로 지은 역서를 강화병마사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난 후에 그 정밀함이 알려져 유명해졌다. 1362년(공민왕 11)에 서산으로 하향하여 학문을 연마하다가 천거로 사천감판가로 등용되었고, 48세에는 서운관 권지주부(임시직)가 된 후 서운관 주부의 직을 맡게 된다.

53세 때에는 조봉랑, 55세에는 종부시승으로 전임하면서 서운관을 겸직 통직랑으로 봉해진다.

56세에는 주정이 대고 57세에는 중현대부 사재령등을 거치면서 73세때 조선이 개국된다. 이 무렵 벼슬을 그만두고 서산으로 내려갔었다.

76세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 태조가 여러 번 불러 부득이 상경하여 양촌 권근, 중직대부 설경수 등과 24기의 절조를 만들어 그 공으로 개국공신 1등이 주어졌으나 받지 않고 개성 취령산 기모방에 은거하여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였다 한다.

1402년(태종 2) 두 아들에게 '나는 고려사람이다. 송도에서 죽을 테니 내 묘에는 봉분도 만들지 말고 비도 세우지 말라' 고 유언하고 세상을 마쳤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백유는 어려서 목은 이색에게 수학하였고, 생원, 진사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3남인 백순은 생원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원래 석본이 평양에 있었으나 전란중에 강에 빠져 잃어버렸다고 한다. 조선을 건국한 그때 평양 석각본의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문도가 세월이 오래되어 그 도수가 차이가 나므로 서운관에 명하여 그 값을 새로 측정하여 고쳐 새겼다고 한다. 이때 참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양촌 권은 문인으로 천문도를 설명하는 글을 썼지만 천문학자는 아니고, 류방택이 추산을 하였다 하여 천문계산을 책임진 책임자였다.

2000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한국천문학의 소중한 유산인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금헌 류방택 선생의 큰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발견한 소행성에 류방택별로 명명하였다.

인지면 애정리에는 도지정 문화재 제207호인 송곡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9분의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중의 한분에 류방택 선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개관한 류방택 천문관은 이러한 연유로 송곡사 옆에 있다.

공공미술(公共美術)2

- 功共美術 혹은 空共美術 -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성공적인 공공미술의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게이츠헤드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니, 먼저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서산시의 인구가 한 16~1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아마 서산시와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될까?- 영국 북부의 도시부터 가보자. 원래 게이츠헤드는 탄광도시였다고 한다. 16세기에 이 지역에서 석탄이 생산되면서 18세기에는 대규모 광산회사가 들어서 번성을 누렸지만 1960년대 대처 정부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게이츠헤드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오랜 경제침체의 그늘을 벗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이런시의 노력은 마침내 성공을 거둬 몰락하던 탄광촌인 작은 소도시에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발틱 현대미술센터와 세이지 음악센터같은 공공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북방의 천사 – 안토니 곰리

세이지 음악당과 밀레니엄 브리지

1996년에는 '세계 시각예술의 해'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만큼 세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게이츠헤드의 성공은 10여 년간의 오랜 준비 작업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간 결과다. 국내에도 '탄광촌을 문화도시로 거듭나게한 공공미술작품' 이라는 제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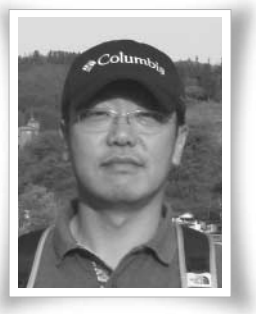
소개된적이 있는 '북방의 천사' 라는 조각은 바로 이 성공을 이끈 주인공이다. 게이츠헤드 의회는 1990년 7월 탄갱을 메워 만든 언덕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조각상을 세우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94년 유명 조각가 안토니 곰리가 최종 선정되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80퍼센트 이상이 반대했을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컷다고 한다. 이에 시당국과 작가는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전문가를 통한 워크숍을 열었으며, 작품제작과정에 대한 전시와 홍보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주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1998년 5월 북방의 천사가 마침내 완공되었다. 10여년 만에 완성된 아름다운–이 조각상이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문제겠지만 북방의 천사가 가져온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조형물로 인해 게이츠헤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스톤헨지나 웨스트민스터사원 같은 문화유적과 함께 영국을 상징하는 10대 문화 아이콘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40만명 이상이 북방의 천사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이후 공연장인 세이지 게이츠헤드, 발틱 현대미술센터, 밀레니엄 브리지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활력을 되찾았고, 실업과 파업이 반복되며 전통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문화가 강한 이곳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북방의 천사가 완공되던 날, 제막식에서 시민들은 북부 출신으로 영국 축구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앨런 시어러라는 선수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혔다고 한다. 축구는 영국의 종교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레모니였을 것이다. 그들이 이 작품에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엄청난 규모와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인 안토니 곰리의 작품이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 지역 주민 스스로가 공을 들이면서 '북방의 천사' 는 곰리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모두의 작품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성공담을 늘어 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어떤가.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나라 이야기인걸...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동네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호수공원이다. 아직도 똥방죽이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지금은 문자 그대로 환골탈태하여 서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항상 악취와 모기떼가 들끓던 똥방죽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또 옥녀봉 말고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던 터에 호수공원은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았다. 그리고 공원이 조성된 후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해졌다. 최근에는 공원내에 새로 놓여진 조각품들과 공원 입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눈에 띈다. 이중에서 조각품들은 팝아트적인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특히 많은데,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작품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작품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

들의 웃는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즐거워 하는 엄마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공공장소에 놓인 미술작품이 보는 사람과 교감되는 모습이야말로 공공미술이 꿈꾸는 행복한 결말이 아닌가. 그런데, 성공사례라고 말하기에는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작품의 선정에 얼마만큼 신경을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각의 작품들이 너무도 개별적이어서-마치 어느 미대 졸업작품전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듯한-전체를 아우르는 기획의도같은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작품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열해 놓는 것은 공공미술의 특성을 염두에 두었다기 보다는 전시장에서의 상투적인 디스플레이를 생각나게 한다. 사실 그런것들이야 결정한 분 나름의 취향과 안목이 작용하였을테니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 정도로 해두면 그만이지만, 간간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작품의 일부분들은 감상하고는 별개로 공공시설물로써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몇몇 작품은 좌대의 수평을 맞추지 않아 눈에 거슬릴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그것도 제작의도였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좌대 주변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전광판-누구 아이디어인지 가끔 궁금해진다. 화장실이나 하나 더 만들지. 그리고 그 안에 평면TV 하나 걸어 놓고-에 대한 생각이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도대체 저게 뭘까 하고 무척 궁금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낮이나 밤이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마도 호수공원에 놓인 전체 작품에 든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과 유지비용이 들었을 이 커다란 전자제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가? 아니면 조각작품이 아니니 조형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주변엔 벚꽃이 지고 있는데 눈치우기 홍보 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런 경우를 空共美術라고 할 밖에... 호수공원의 행복한 시작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디에든 우여곡절은 있기 마련이다. 게이츠헤드라고 이만한 사연이 없었을까.

우리말에 '공을 들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다소 추상적인 접근일지는 모르지만 공공미술이 그야말로 公共美術이기 위해 지켜져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다. 호수공원은 여전히 훌륭한 공공미술의 장이고, 우리는 백제의 미소를 만들어낸 예술가의 후손이다. 우리 스스로가 써내려갈 행복한 결말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창조의 제국(지안, 임근혜 지음)-게이츠헤드시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책의 본문을 참조하였음.



글쓴이 소개

조 성 찬

• 화가, 도예가
• 해울도예공방 운영

어둠 속에서 그리운 얼굴이 등불을 켜고

- 나의 아버지 곤강을 말합니다 -

윤 명 순 (윤곤강 시인의 둘째딸)

윤곤강 시인 생전 모습

아버지 윤곤강 시인은 1911년 9월 22일 서산시 동문동 777번지에서 출생하여 1950년 1월 7일 39세의 일기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어언 61년이 되었으니, 세상물정도 모르고 철부지이기만 했던 내가 열세 살 나던 해였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실 때에도 내가 밖에 나가 놀고 있노라면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불러들이곤 하시던 아버지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무튼 찌든 생활에 전전긍긍하던 자식들의 불효로 하여 10여 년 전에서야 비로소 그토록 염원하던 아버지 묘소를 뒤늦게나마 단장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무상하여 오르내리던 길도 사라지고 제멋대로 자란 나뭇가지와 가시덩굴로 우거져 햇볕도 들지 않았으며 봉분마저 나지막하여 이를테면 후손이 끊긴 무덤 같았습니다. 포클레인으로 아카시아 뿌리도 뽑았으며 나뭇가지와 덩굴들을 쳐내고 올곧은 길을 내어 묘소를 둘레석으로 둘러 봉분도 높이고, 상석도 놓고, 묘비를 세우고, 잔디를 새로 입힌 뒤 봉분제도 지냈습니다.

이 모든 계기는 박만진 시인이 [서안시(西岸詩)] 동인지에 쓰신 '봉원 윤곤강 시인의 묘소를 찾아서'를

왼쪽에서 두번째 – 필자 (둘째딸 / 윤명순)

읽고 죄스러움에 가슴 절절하던 때에 이뤄졌으며, 그 후 당진군에서 '시인 윤곤강 묘소 입구' 라고 쓴 스텐레스 안내판을 만들어 큰길가 옆에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박만진 시인의 헌신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변변치 못한 유가족들은 아버지의 문학적인 자료를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박만진 시인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윤곤강 시선집〉과 시론집 〈시와 진실〉을 펴내는 등 서산시의 도움으로 서산시 문화회관에 아버지의 시비(詩碑)까지 세워주셨으니, 그 고마움을 오로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광복과 더불어 혼돈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와 파벌, 갈등과 반목으로 살기 어려운 시기에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시고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시느라 매일 밤잠을 설치신 때문에 피로가 겹치고 겹쳐 어느 해 여름 탈진하여 쓰러지신 뒤 병석에 눕게 되신 것입니다. 요즘만 같아도 의학이 발달하여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 내수동에 있는 김근배 내과의원에서 왕진 치료를 받는 등 한약도 드시곤 했는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께서 1,500석지기의 큰 부자였었는데 왜 큰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지 않고 집에서 병간호를 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돌아가신 병명이 척추염 및 신경쇠약이라고 했습니다. 밤낮을 불구하고 원고를 쓰시느라 책상에 늘 앉아계시다가 척추염이란 지병을 얻은 것일 테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까닭에 피로가 쌓이면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본명은 윤붕원(尹朋遠)입니다. 가끔은 책자나 신문에서 아버지 약력을 소개할 양이면 벗 붕(朋)자를 밝을 명(明)자로 오기(誤記)하여 윤명원(尹明遠)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아 온 때문에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해방이 되고 아버지께서는 보성고보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성균관대학과 중앙대학에 출강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국동에 가야 혜화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 중앙대학은 화동에서 종로까지 걸어가서 전차를 타고 노량진에서 내려 흑석동까지 다시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 새벽 3시까지 원고를 쓰시느라 편히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일찍 삼청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돌아오시는가 하면 화초를 좋아하고 화분에 분재를 즐겨 가꾸시기도 했습니다. 원고 인세(印稅)라도 받는 날이면 우리들의 예쁜 원피스와 구두도 사주셨습니다. 또한, 음악과 골동품을 좋아하시어 거문고와 도자기를 사들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 〈살어리〉를 쓰신 후에, 어쩌다가 내가 그 시를 암송이라도 할양이면 더없이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경기중학교 아래 목욕탕 앞집으로, 당시 윤보선 대통령 댁 근처에 살았습니다. 퇴근 후 아버지께서 귀가하실 무렵쯤에 골목길에서 이웃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다가 "아빠!" 하고 품에 안기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콧마루가 찡합니다.

원고를 쓰랴, 강의 하랴, 방송국 출연을 하랴, 바쁘신 나날을 보내실 때에 노천명(盧天命) 선생님, 최정희(崔貞熙) 선생님, 모윤숙(毛允淑) 선생님, 그리고 중앙대 신영철 교수님께서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들을 나누다 가시던 생각도 납니다.

본디 우리 집은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 하면 스르르 열리는 아치형 돌문같이 생긴 문 위에 나무로 조각한 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돌계단을 한참 따라 올라가야 대문이 나오는 99간 전통 한옥이었습니다만 경기중학교(지금의 정독도서관) 담장 바로 옆에 도시계획으로 큰 길이 나게 되어, 그 집을 일제(日帝)에 헐값으로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동아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아버지께서는 징용을 피하기 위해 한때 당진으로 내려가 면사무소 서기를 지내시며 당진 읍내 대채골에 붉은 빛 참죽나무로 덩그런 기와집 한 채를 2년간이나 걸려 지으시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전기를 끌어들이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신 뒤에도 당진 집으로 내려가 유성기와 라디오를 틀어놓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유화를 그리시던 모습 또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증조부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더욱 불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베풀기도 하시어 서산시 옥녀봉 입구 단군전 아래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고 말미에 '꽃동네에서'라고 항상 밝히곤 하셨는데 화동(花洞)에 사시던 때문이었고, 그 육필 원고가 온데간데없이 모두 사라져버려 마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전에 가장 가깝게 지내셨던 중앙대 신영철 교수님께서 북으로 끌려가시지만 않았더라면 보다 일찍이 작품집도 빛을 보았을 테고 복사라도 해두었더라면 아버지 자료로서 더없이 좋았을 것을, 이 모두가 자식들의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 같아 적이 송구스럽고 가슴 또한 아픕니다.

1979년 서울특별시 '어머니 솜씨대회'에서 내가 대상을 차지하게 된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손재주를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과 그림, 화초 등을 좋아하는 성품까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글 솜씨 만큼은 아버지를 닮지 못해 두서없는 이 글을 쓰자니 어둠 속에서 그리운 얼굴이 등불을 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총총 줄이며, 아버지의 자료를 모아 시비(詩碑) 및 시선집(詩選集)과 시론집(詩論集)을 펴내시어 고취 및 선양해 오신 박만진 시인과 문인 여러분들, 그리고 서산시와 서산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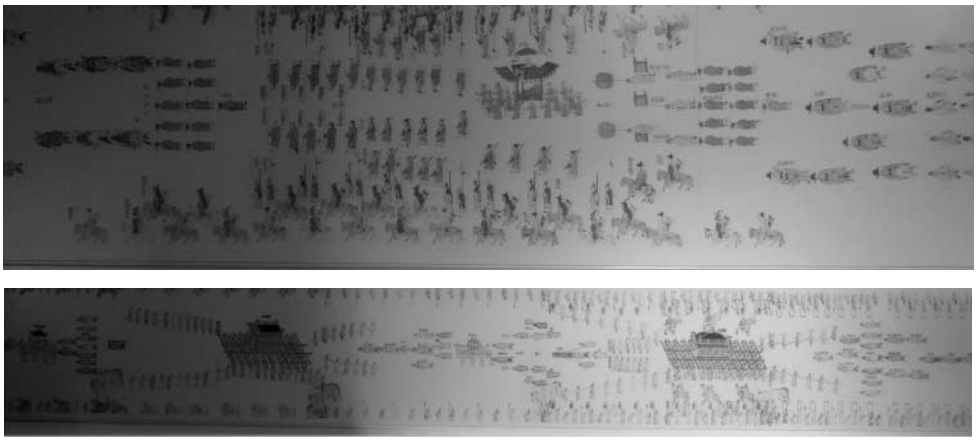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정 순 왕 후

MBC 드라마 〈이산〉의 등장인물 중에서 서산 출신이 있었다. 영조의 부인이자 정조의 할머니인 정순왕후 김씨(김여진 분)가 바로 그이다. 영조 21년 11월 10일(1745.12.2) 지금의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서 태어나 순조 5년 1월 12일(1805.2.11) 창덕궁 경복전에서 세상을 떠난 여인이다. 그는 정조가 죽은 뒤에는 실질적인 임금 노릇까지 했다. 11살의 증손자인 순조를 대신해서 대왕대비 자격으로 3년간 수렴청정을 한 것이다. 5백년 조선왕조 역사에서 수렴청정을 한 여인은 모두 여덟 명이다. 정순왕후는 그중 하나였다.

정순왕후의 생가

정조의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친할머니는 아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인 정성왕후 서씨가 사망한 뒤 그 뒤를 이었다. 또 정조의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정조보다 일곱 살 연상에 불과하다. 누나 같은 할머니였던 셈이다. 누나 같았다 해서, 정조와의 관계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한편 협력하고 한편 대립하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다. 그가 정조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복원한 외규장각에 전시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걸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정적 이미지만을 남긴 것은 또 아니다.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그는 여성다운 섬세함으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행적을 정리한 「정순왕후 지문」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구휼정책을 손질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긴 인물이었다.

그런 정순왕후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귀환' 한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인과정을 담은 왕실문서인 가례도감 의궤가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유수부(고려궁터) 건물을 불태우면서 그곳의 외규장각 도서들을 약탈할 때, 이 의궤가 프랑스인들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다. 규장각(왕립 학술원)의 분소인 외규장각에는 병인양요 직전까지만 해도 5,067권의 서적이 있었다. 이 중에서 프랑스군은 고문서와 의궤(행사 가이드)를 집중적으로 약탈해갔다. 이렇게 프랑스로 넘어간 서적 중에서 297권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대여' 형식으로 돌아온다. '반환' 이 아니고 '대여' 인 이유는, 프랑스 측이 자신들의 소유가 불법임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의 가례도감 의궤가 4월 14일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 후에 돌아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반환되는 도서의 목록은 맨 나중에 일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도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고려해서, 프랑스 정부가 가급적 조용히 도서를 반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여' 냐 '반환' 이냐의 법리 논쟁이 아니다.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를 포함한 조선 서적에 대해 프랑스군이 왜 그토록 집착했는가 하는 점이다. 마치 '건물 철거반' 처럼 강화유수부 건물을 처참히 파괴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만큼은 왜 그토록 소중히 챙겼는가 하는 점이다. 19세기에는 서양에 비해 동양이 미개하지 않았는가? 미개한 나라의 서적 같은 것은 싹 불태웠어야 하지 않는가?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는 것은 미국과 서유럽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군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에 전시된 그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유수부 터, 프랑스군의 파괴 · 약탈로 많은 건물이 사라졌다. 몽골침략기에는 궁궐로 사용된 곳이다. 그래서 고려궁지 궁터라고 불린다.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일류로 떠올랐고, 서유럽은 아편전쟁 이후인 19세기 중반부터 세계 일류로 부상했다. 그 이전에는 이류에 불과했다. 그들이 이류였을 때는, 동아시아가 적어도 국제통상 측면에서는 세계 일류였다. 경제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리오리엔트」에서 1545년 이후부터 1800년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13만 7천 톤의 은(銀) 중에서 6만 톤이 중국에 유입되었다고 했다. 44%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시에는 은이 국제화폐였기 때문에, 은의 유입은 곧 무역수지 흑자였다. 중국이 오랫동안 흑자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차 · 비단 · 도자기라는 3대 수출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효자종목'을 바탕으로 중국은 '은의 블랙홀'이라 할 정도로 세계의 은을 빨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등 서유럽은 만성적인 대(對)중국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유럽이 마땅한 수출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아편을 뿌려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만회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조선과 청나라가 서유럽과의 관계를 주저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유럽의 역량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청나라는 자국이 세계무역의 중심이기에 서유럽을 무시했던 것이고, 조선은 청나라를 확실히 붙잡고 있었기에 굳이 딴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이 일찌감치 서유럽에 눈을 돌린 것은 청나라와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적어도 통상관계에서만큼은 동아시아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당시의 서유럽 사람들에게는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이 아주 절실하고 긴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동아시아 서적을 열심히 번역하고 또 번역했다. 도널드 라크와 에드윈 클레이가 1965년에 쓴 「유럽을 만든 아시아」에 따르면 16~17세기에는 수백 권의 아시아 서적이 유럽인 선교사 · 상인 · 선장 · 선원 · 의사 · 군인 · 여행가 등에 의해 유럽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 시어도스

포스가 1986년에 쓴 논문에 따르면, 18세기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은 중국의 기술서 · 실용서 등을 열심히 번역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동아시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계무역의 중심부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서양 서적을 열심히 번역하듯이, 19세기 이전에는 서양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프랑스 병사들이 강화유수부 건물은 불태우면서도 책만큼은 소중히 챙겨간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적국의 정부기록이기 때문에 훔쳐 간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서적은 귀중하다' 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자신들이 앞서지만 사상 · 문화 · 무역 측면에서는 동아시아가 여전히 앞선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동아시아 서적을 열심히 번역해내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그들의 눈에는 외규장각 도서들이 아주 값나가는 물건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의 서적을 탐했던 것이다.

서양 중심주의에 빠진 지식인들은 서유럽이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 일류였던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서유럽은 19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동아시아를 능가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유럽은 지식인들을 동원해 '동양은 본래 미개했다' 는 인식을 조장했다. 승자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역사왜곡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아시아가 서유럽을 능가했던 19세기 이전의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순왕후의 가례도감 의궤가 프랑스로까지 넘어간 것은, 동아시아의 문화 콘텐츠가 서유럽의 그것을 능가하던 19세기 이전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를 비롯한 고서적들이 뒤늦게나마 돌아오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이번에 고서 일부를 돌려주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도 5만 권 정도의 한국 고서가 있고 그 외의 나라에도 한국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으니, 차제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가일층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 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되찾는 일이 될 것이다.

글쓴이 소개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TV 속 역사읽기' 연재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용의 기운이 서려 있는 산

진 악 산

금산문화원장
김 호 택

아득한 옛날에 동쪽 바다에 커다란 이무기가 한 마리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무기는 동해바다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의 등살에서 비린내가 나 해서 같이 생활하기가 거북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왕님께 빌고 빌면서 "수많은 물고기 사이에서 지내기가 어려우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으로 보내 주십시요."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용왕님께 애원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용왕님은 이무기가 하도 여러 차례 간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왕님은 전국적인 명산인 진악산에다 깊이 굴을 파가지고 물을 담아서 그 속에다가 이무기를 데려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굴의 깊이가 진악산에서 시작해서 영동 학산까지 이어지는데, 무려 15km나 산속 깊이 뻗어내려 가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무기는 그 머리가 진악산 용굴에 있고, 그 꼬리가 5km에서 9km나 되는 영동군 학산 들판까지, 때로는 양산 8경까지 꼬리가 미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명산인 진악산에 놀러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진악산 등산을 갔던 일행 중에서 한 분이 명태와 다른 물고기를 먹고 등산하였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던 중에 이들은 점심때가 되어 물굴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굴 속에 사는 이무기는 그렇지 않아도 바다 여러 어족들의 비린내를 맡기 싫어서 진악산 물굴까지 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비린내를 풍기니까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하여 음식을 먹던 사람들을 위협한 일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 굴

개 삼 터

위의 이야기는 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긴 금산의 전설』에 수록된 진악산의 이야기이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금산군편 자료 산천조에도 진악산의 기록이 나타나 "군의 남쪽 7리에 있다. 동쪽 봉우리 아래 바위굴이 있는데, 너댓 걸음 들어가면 물소리가 요란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로는 용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날이 가물 때 호랑이 머리를 집어 넣으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진악산은 용이 살고 있는 산으로 유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실 진악산은 풍수적으로는 금산의 진산(鎭山)이 아니다. 진산으로 소산(비호산)으로 알려져 있으니 진산이 아니면서 진산 이상으로 금산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진악산은 금산읍 음지리, 계진리, 상옥리, 하옥리와 남이면 성곡리, 석동리, 상금리, 하금리 사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물굴봉(735.7m), 관음봉 또는 수리봉(732.3m), 노적봉 또는 문필봉(631m) 등 크게 세 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은 그리 크지 않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날아드는 형국이기도 하고 장구를 치며 크게 풍류를 즐기는 형국이라고도 한다. 전하는 말로는 태초에 홍수가 나서 지네등 만큼 남았다는 홍수설화가 있고 산이 거듭 굽어 나아가는 형국으로 풍류 또한 크게 일어나 이어지는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진악산은 웅진시대에는 진잉을(進仍乙)이라 하고 사비시대에는 진내(進乃)라 하고, 통일신라에서는 진예(進禮)라 부르던 금산의 옛이름과 함께하는 산이다. 그래서인지 진산이 아니면서도 진산 그 이상으로 금산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은 단지 풍수나 설화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금산의 중심을 이루는

요인이 되고 있다. 풍수적으로 진악산의 중심은 물굴봉으로 좌청룡이 관음봉이고 우백호가 노적봉에 해당이 된다.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물굴봉 자락에 금산 인삼의 효시가 되는 강처서 효행설화을 간직한 강처사 고택과 진악산 산신을 모시고 있는 개삼각이 있고, 금산의 서원이 효시가 되며 당시 금산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야은 길재 선생, 율정 윤택 선생, 낙천재 김신 선생 등 금산의 성현을 모셨던 성곡서원이 있고, 선사시대의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다. 관음봉 자락에는 강처사의 효행설화와 관련이 있는 관음굴이 있고 봉화대의 흔적이 있어 지금은 진악산의 주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노적봉 자락에는 풍수적으로 장자가 방아를 찧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노적봉이라 부르고 있다.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진악산이 금산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용의 설화로 전승되고 있는 물굴봉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민속으로 등잔혈의 혈처이다. 예로부터 가뭄이 심하면 호랑이 머리를 집어넣으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기우제를 지냈던 풍습니다. 산신을 대표하는 호랑이와 수신을 대표하는 용의 대결 양상으로 결국 수신인 용이 승리하는 것으로 극도로 흉흉한 민심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악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물굴 아래를 보면 물굴봉의 또 다른 혈처로 호롱혈이라도 부르는 자리에 묘를 쓰면 당사자의 집은 누대로 복을 누리지만 비가 오지 않는 다고 하여 파묘를 한다고 한다. 파묘를 하기 전에 물굴의 용신을 위하여 산신제를 모시고 그곳을 파보면 반드시 밀장을 한 시신이 나온다고 한다. 개인의 복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였던 금산의 상징이며 명소라 할 수 있다. 개삼각이 이곳에 존재하게 된 이유 또한 범상하지 않다. 백제시대 성곡마을의 강처사가 어머님의 병환을 낳게 하기 위하여 관음봉 관음굴에 가서 기도를 올리던 중 산신의 현몽으로 얻은 인삼씨앗(삼딸)을 이곳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하여 개삼터가 있고 또 그때 얻은 진악산신의 영험을 기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산신각을 지어 매년 금산인삼축제 개삼제를 이곳에서 모시고 있다. 금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적인 인삼약초시장으로 발전하게 한 명산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 진악산의 이름을 있데 한 요인이 지리적인 위치라 할 수 있다. 과거 진산군과 금산군의 경계이고 지금의 영동군 등 세 지역의 중심지가 진악산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세 지역은 산악지대와 평야지대를 가르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사비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접전지이며 부여로 통하는 요새지로 알려진 탄현이 이 산맥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진내군의 치소로 알려진 조종산성이 관음봉 또는 수리봉에서 이어지고 있다. 새가 날개를 펴고 웅비하는 형국이라 수리봉이라 하였는데 그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조종산성은 천혜의 읍치로 고려말까지 읍치로 자리하고 있어 진악산의 또 다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의 탄생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경기도와 작가 백남준의 논의로 시작하여 2008년 10월 8일 '백남준페스티벌'로 그 문을 열었다. 2006년 8월 29일 공사를 시작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2008년 4월 30일 완공식을 가졌다. 백남준의 정신을 기리는 아트센터에 걸맞게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200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일인 크리스텐 쉐멜 (Kirsten Schmel)의 '매트릭스(the Matrix)'라는 작품을 기반으로 마리나 스탄코빅(Marina Stancovic)이 공동설계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랬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 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며 동시에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의 실천과 활동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예술, 테크놀로지, 인문학의 실험적 융합을 시도하는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속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개입 및 연결을 시도하는 국제 아트센터를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아래 백남준아트센터는 2008년 3월 1일 초대 관장(이영철,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의 선임 후 외국의 유능한 전문 큐레이터들을 채용하여 백남준아트센터의 인력 수준과 시스템을 격상시키고, 국제적인 아트센터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2011년 3월 10일 2대 관장인 박만우 관장이 새롭게 취임하여 그러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박만우 관장은 서울대 미학과와 파리 1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부산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전문 큐레이터이다.

국제적인 센터로 도약 - 전시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후 일 년 오개월간 국제적인 관심과 참여에 걸맞게 전시 및 퍼포먼스, 교육 프로그램, 국제학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통해 관객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의 상설전은 단순히 백남준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박물관 식의 전시를 벗어나 매번 특정한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여 백남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작곡가, 퍼포머, 비디오 아티스트, 위성 아티스트, 인문학적 사유자였던 백남준의 다양하고 폭넓은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국제적인 센터로 도약 - 대중 프로그램

2009년 11월 28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2009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 상은 아트센터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으며 씨엘 플로이에, 로버트 애드리언 엑스, 안은미, 이승택 등 4인의 작가가 선정된 첫 번째 국제 예술상은 국제적인 심사위원 구성과 작가 선정으로 인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좀더 폭넓은 백남준 연구를 위하여 격년제로 예술가와 이론가로 수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0년 2회를 맞이한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에서는 과학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단독 수상하게 되었다. 이 상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학자들이 백남준을 이해하고 연구의 폭을 확장하기를 기대해본다. 향후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은 백남준아트센터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백남준 연구 및 창작활동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주요한 상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개관 페스티벌 때 이미 국내외 24개 팀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백남준아트센터는 2009년 〈오버뮤직: 백남준아트센터 실험페스티벌〉, 2010년에는 여름 특별 프로그램으로 '달리는 늑대들' 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현대무용 안무가 및 무용수, 정영두, 김나현, 김명신, 정금형, 김보라의 공연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국제 퍼포먼스 프로젝트 'Out of Place, Out of Time, Put of Performance'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러한 대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센터로 도약 - 연구 프로젝트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 연구 기관으로서 백남준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 정신을 현재에 구현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할 수 있는 백남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그를 공유하고자 앞으로도 연구 및 출판 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2009년 백남준아트센터는 어린이 가이드 북 〈달나라 백남준〉, 국제세미나 결과물인 〈백남준의 선물 I〉, 〈백남준의 선물 II〉, 저널 〈백남준 Reader〉, 그리고 2010년을 맞이하여 약 2년간의 연구결과를 모은 백남준 총서 I 〈백남준: 말馬에서 크리스토까지〉와 백남준 총서 II 〈백남준의 귀환, NOW JUMP〉를 발간했다. 백남준 총서 I 〈백남준: 말馬에서 크리스토까지〉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백남준이 직접 쓴 저작으로 한국 내 백남준 연구에 서막을 열 중요한 저서이며, 백남준 총서 II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을 맞이해 열렸던 '백남준페스티벌' 전시의 카달로그이자 백남준의 작품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핵심 키워드와 사상을 읽을 수 있는 연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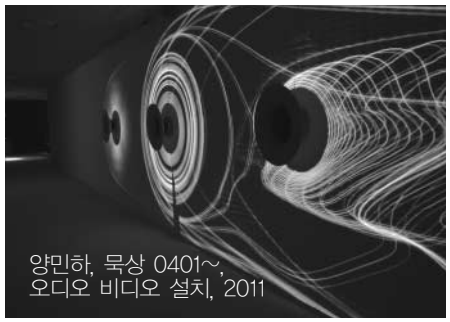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교두보

백남준아트센터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국공립 미술관들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역동적이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있다. 특히나 전시 뿐 아니라 대중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해외 문화인사들의 백남준아트센터 방문은 단순히 개관에만 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난 일 년 간 후쿠이

백남준 라이브러리 _ 1

백남준 모음곡 212 중 패션 애비뉴
1975, 서울스퀘어 상영모습

Nam June Paik, TV Garden,1974-2


양민하, 묵상 0401~,
오디오 비디오 설치, 2011

김기철, 사운드 드로잉,
혼합매체, 2001-2011

미술관의 히로유키 토다나, 나오시마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프랑스디종컨소시움 예술기획자 프랑크 고트로, 리용비엔날레 총감독 티에리 라스파엘 등 국제적인 미술관계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백남준의 이름을 딴 미술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끊임없는 국제 홍보를 통한 지명도 확장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11월 11일(목)일 CNN의 〈CNNGo〉 프로그램을 통해 백남준아트센터가 전 세계로 소개되었다. 헐리우드에서 주목받고 있는 벤슨 리 감독의 진행으로 촬영된 백남준아트센터의 모습은 8회에 걸쳐 주말 황금 타임에 전 세계의 시청자를 만났다.

2009년 백남준아트센터는 '비디오 샹들리에 No. 1'을 비롯한 설치작품 5점과 사진 작품 105점, 포스터 및 도서 등 자료 200여점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았다. 2010년에는 '징기스칸의 귀환'을 비롯하여 약 20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포스터 및 백남준 관련 자료 435점등 다수의 작품을 기증받거나 구매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기반으로 좀 더 대중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쉽고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 교육의 산실이자 백남준이 그러했던 것처럼 국제적인 현대예술 담론의 발원지가 되고자 한다.

▮ 홈페이지 : www.njpartcenter.kr ▮ 관람안내 : 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 휴 관 일 :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월요일, 매년 1월 1일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니다.
▮ 입 장 료 : 무료
▮ 정기 도슨트 투어 (전시 설명 관람) : 아래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1층 로비에 모여서 시작
▮ 월~금 오후 2시, 4시 / 토-일 오전 11시, 오후 1시, 2시, 4시
▮ 대표전화 : 031-201-8571, 8572

안견기념사업회

안견기념사업회의 신응식 회장을 만나 안견기념사업회의 역사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어보았다.

Q 안견기념 사업회의 역사와 활동 등이 궁금합니다.

A 1988년 창립하여 현재 저는 2대 기념사업회장직을 하는 중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견 선생의 탄생년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약 1,400년경 출생하여 약 1,470년 사이에 타계했을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출생지로 지곡리라 전해지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 지곡리가 있어 곳곳마다 지역 특색을 살려 안견 출생지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술조사를 통해 서산시 지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견기념사업회는 위대한 화가인 안견의 업적을 선양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이었던 조규선 회장께서 서산시 지곡면에 안견기념관,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13회의 미술대전을 주최하고 서울지회, 대전지회를 설립하였으며 일본 교류전시회를 매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안견기념사업회에서 매년 '안견도원을 걷다' 행사와 전국 미술대학 교수 및 중진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역사와 근거에 의하여 서산시 지곡 태생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Q 안견은 우리 역사와 문화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인가요?

A 안견은 조선조 도화서의 화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정4품 호군 벼슬을 하사받았고, 전해지는 진작으로는 일본 철리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몽유도원도 뿐입니다. 전진 작품으로는 적벽도, 사시팔경도, 소상팔경도 등 많은 작품이 있으나 전해지고 있는 진품으로는 몽유도원도만 남아있습니다. 안견 선생은 신라 솔거, 고려 이령과 함께 우리 회화사상 3대 화가로 손꼽는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Q 기념사업회에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2011년 6월 11일 해미읍성 축제에서 전국 미술대학교 교수와 미술인들의 '도원을 걷다'를 식전행사로 출연합니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계정사지에서 몽유도원도 꿈의 해몽지인 옛날 그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1월 중 서울에서 중진 작가 회화 정진전 전시를 하고 대전에서는 11월 중 중진 작가 모색전

전시 및 몽유도원도 반환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안견미술대전을 열지 않으며 더 철저한 준비로 내년 더 좋은 대회로 만나 뵙고자 합니다.

Q 안견미술대전 작품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지금까지 13회의 미술대전을 주최하면서 많은 작품을 만나왔지만 특별히 하나 꼽자면 2007년 대상작인 한국화 "금선계"가 기억에 남습니다. 안견미술대전은 특히 전국 각지의 많은 신진작가들이 참여하는데 "금선계"의 작가 정옥임씨도 그러했습니다. 대상 수상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교수로도 활동영역을 넓혀 이후 지금까지도 안견기념사업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견미술대전은 미술 작가로서의 등용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안견미술대전의 작품 중 많은 서예, 문인화, 서영화, 조소, 등 우수작품이 서산시에서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Q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오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안견 기념 사업회에서는 매년 여러 문화예술행사를 주최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념사업회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학생들의 참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요즘 경제가 침체되어 일반인들의 참여는 다소 처음보다 감소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Q 안견기념사업회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현재 안견기념 사업회에서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안견예술공원화 사업입니다. 하루속히 공원이 조성되어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념사업회의 꿈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예술 공원이 속히 조성되리라 믿으며 행정 당국에서는 조속히 안견 예술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념 사업회에서는 도지사령 사단법인에서 문화관광부 산하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최종심의를 걸쳐 결제 중에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땅의 후예

대산고 1학년
정 가 영

나는 조선의 후예였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야 했던 어느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나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태어나게 된 이유인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은 지금도 저에게는 자랑입니다. 그를 만나본 적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보이는 그의 강직한 인품과 몇 십 년의 지난 지금에까지도 저에게 전해오는 그의 나라 사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땅은 내 핏줄이 시작된 땅으로 늘상 제 가슴 한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땅을 밟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이 땅을 밟게 된 2007년 나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그저 그런 장소겠지만 그 세대를 걸쳐 드디어 이 땅을 밟게 된 저에게 이 땅은 공기부터가 따스한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기 생활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학교에서 나는 한국인으로 보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나를 중국에서 온 중국인으로 보았을 뿐 나의 내면을 보려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심지어는 나를 "중국인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그럴 수도 있지 무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는 투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기다림에 대한 배반처럼 여겨져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배신감과 함께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지 4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의 이해와 관심 덕에 그런 생각은 거의 지워졌고 국가기관의 관심 덕에 그런 생각은 거의 지워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한국으로 귀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권유도 뿌리치고 말입니다. 이제 여기 온지도 4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간간히 증조할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려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생전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분명 기뻐하셨겠지요. 저는 이 땅이 좋습니다. 그건 아마 당신의 몸속에 있던 뜨거운 피가 저에게도 흐르는 까닭이겠지요? 그래서 이 땅이 저에게 이리도 애잔한 것이겠죠? 저는 오늘도 이곳을 거닐며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이 땅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평화로운 내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소한 것에서 애국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녕 합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땅을 사랑했었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한 이 땅은 아마 영원히 안녕하겠지요. 평화로운 이 땅에서 저는 당신을 그리고 내가 이 땅의 후예임을 나는 가슴속에 새깁니다.

▮충청남도지사배민속대제전

전통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한 민속경기대회에 참여합니다.

- 일 시 : 2011. 5. 20(금) 10:00
- 장 소 : 청양 지천백세공원
- 대 상 : 만 20세이상 서산시민
- 종 목 : 씨름, 줄다리기, 힘자랑, 널뛰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제13회 청소년문학제 시상식

지난 4월 실시한 청소년문학제의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1. 5. 25(수) 16:00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대 상 : 수상자 69명(초 · 중 · 고등학생)
- 시 상 : 상장 및 부상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반차도) 특별전시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모습을 담은 그림을 특별전시합니다.

- 일 시 : 2011. 6. 11(토) 예정
- 장 소 : 서산문화원 서산향토사료관(3층)
- 내 용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복제본 전시, 전통문화체험

※ 특별전시후 상설전시 할 예정입니다.

시 | 정 | 소 | 식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체조 광장

2011 건강가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어로빅 · 방송댄스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가족화합과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돕고자 합니다.

○ 일　시 2011. 5. 2~10. 31, (월~금), 20:00~20:50
○ 장　소 부춘산 체육공원
○ 대　상 시민 누구나
○ 내　용
- 단순동작의 에어로빅부터 방송댄스까지 일정별 등급 향상
- 운동 전 · 후 스트레칭
- 1530(1주에 5일, 30분이상) 운동 실천

※ 우천 시 와 국경일을 제외한 주 5일 프로그램 운영

○ 문　의 서 산 시 보 건 소 (☎ 660-3032, 661-6578)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이낭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류영환 (서산시 부석면) 30,000원	• 정두영 (서산시 석림동) 50,000원	• 이융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유배곤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장홍순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류영동 (서산시 예천동) 20,000원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민형익 (서산시 장 동) 20,000원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이융조 (충북 청주시) 60,000원	• 화촌회 100,000원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